

상상의 나라로 삶속 예술 찾아 떠나는 여정

키키(Kix2) 개인전 '이상과 공상'...오는 27일까지 주안미술관

'현실'·'이상'·'공상'·'지지' 4개 섹션...내면세계·자아 탐구 '공감'·'영감'이 주는 무한한 상상력, 감정·경험 은유적 표현

"당신이 꿈꾸는 모습은 어떤가요?" 이상(理想)과 공상(空想)이라는 주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세계관'

신진 작가 키키(Kix2) 개인전 '이상과 공상(BINF)'이 오는 27일까지 주안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신진 작가를 발굴, 지원해 선보이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키키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자아 탐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키키 작가는 신이 만들어낸 캐릭터 '키키'를 통해 어린 시절 품었던 꿈과 자아를 탐구해왔다. 보라색 머리카락과 깡깡 같은 얼굴을 가진 이 독특한 캐릭터는 동굴 속 그림자에서 태어났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키키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다정함을 키워내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여정은 작가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경험을 반영하며, 관객들에게 공감과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키키라는 캐릭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작가의 삶과 내면 세계를 반영한 자아의 또 다른 표현이다.

키키의 작품은 유머러스한 캐릭터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감정과 상상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표현하며, 관객들이 이상과 공상의 경계를 탐

험하고 자신만의 꿈과 자아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는 키키의 내면세계와 자아 탐구를 중심으로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 '현실'에서는 키키가 느낄 법한 불안과 고립의 감정을 다룬다. 두 번째 섹션 '이상'에서는 키키의 근원적인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아를 탐구한다. 세 번째 섹션 '공상'은 경험과 상상이 혼합된 세계관을 보여주며, 네 번째 섹션 '지지(地



'심장을 행거'



'사랑의 정원에서 춤을'

支)'에서는 시간과 이야기가 다원화된 상상력을 탐구한다. 주안미술관은 이 네 개의 섹션을 통해 관객들이 키키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키키의 이야기는 단순히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관계와 경험이 자아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기시킨다.

작품 속 키키는 사람, 자연 혹은 물질과 연결되며 사랑과 감정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또 키키의 여정은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내면과 꿈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 그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은 관객들에게 순간의 감정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제안한다.

키키 작가는 "우리가 가진 꿈과 공상은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라며 "이상과 공상은 단순히 비현실적인 상상에 그치지 게 아니라 삶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대니 구가 선사하는 음악선물

오는 18일 광주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포커스 'Home'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독보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사진)의 광주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커스 대니 구·조윤성 트리오 공연 'Home'이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넓혀가고 있는 대니 구는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국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클래식·재즈·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 연주자다.

JTBC '슈퍼밴드2'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감성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최근 클래식 아티스트 최초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그의 진솔한 일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공연뿐만 아니라 2022년 첫 솔로 앨범 'HOME'을 시작으로 2집 클래식 앨범 'CONNECTED'를 발매하며 클래식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무대는 크리스마스 맛이 좋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아끼는 음악들을 모았다. 클래식, 재즈,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매력적으로 재해석해 들려줄 예정으로, 온전히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연자로는 대니 구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조윤성을 비롯해 드러머 석다연, 베이스리스트 션 펜트랜드가 나서 풍성한 사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민주·인권·평화...5월을 노래하라

5·18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5월 5·18기념문화센터

'음악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하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5월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광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다음 세대에 광주 오월정신을 전하기 위해 2021년 창단된 단체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활약한 임영희 단장을 필두로 임복희 예술감독 등 음악을 전공한 지역 강사들의 재능기부로 오케스트라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이날 공연에서는 50여 명의 청소년 단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매주 토요일 광주 중앙초 대강당에 모여 1년 간 갈고닦은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중행 지휘자의 지휘 아래 독재에 항거한 스위스 영웅을 묘사한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 공연의 서막을 장식한다. 이어 바리톤 염종호 협연으로 드라마 '모래시계' 주제가인 '백학', '오 솔레미오' 무대가 이어지며 리베조 이 어린이 합창단이 예민의 '아에이오 우'와 E-QLO 곡 '꿈을 꾸다'로 특별 무대를 펼친다. /최명진 기자



임영희 단장은 "5·18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세계 평화를 노래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가수 알리, 특별 콘서트 '용진'

오는 31일 광주예당 소극장

음악 인생 20년을 맞은 가수 알리(Ali)가 연말 특별한 콘서트 무대로 광주 관객들을 찾아온다.

알리 20주년 콘서트 '용진(勇進)'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콘서트 제목인 '용진'은 자신의 본명에서 비롯됐다. '용감할 용(勇)'과 '나아갈 진(進)'이라는 뜻과 같이 그녀의 굳건한 음악 여정이 담겨있다.

알리는 지난 20년 동안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365일', '지우개' 등 히트곡은 물론, 다양한 드라마 OST를 통해 한국을 대



표하는 발라드 여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가수 알리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녀의 대표곡뿐만 아니라 미공개 신곡과 새롭게 시도한 편곡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알리는 "용진이라는 이름처럼, '용감하게 나아가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지켜온 시간들을 팬들과 함께 기념하고,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나아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

무엇보다도! 무료레슨

오시는 길: 무등경기장, 광주천, 현대자동차 구, 전일상사, 신세계백화점, 위다스, -문암고기-